

원료의약품 2300만달러 수출계약

CPhI Worldwide 2004 참가 ... 110개국 1100개 제약기업 참가

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(회장 정승환)는 12월 7-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2004년 세계 원료의약품 전시회(CPhI Worldwide 2004)에 한국관을 구성해 7100만달러의 상담실적과 2300만달러의 계약실적을 거두었다고 12월26일 발표했다.

또 세계 원료의약품 전시회에는 세계 110개국에서 약 1100개 제약기업과 약 2만여명의 바이어가 방문했다고 전했다.

한국관에는 LG, CJ, 한미약품, 중외제약, 종근당바이오 등 국내 15개 제약기업이 참여했다.

협회 관계자는 “2004년 전시회에서는 국산 부형제(賦形劑)와 항생제, 항암제에 대한 바이어들의 문의가 많았으며, 중국은 전시회에 약 200개 이상의 부스를 설치하는 등 대규모로 참가해 급속한 발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”고 강조했다.

<화학저널 2004/12/28>